



도서관은 살아있다-광주 이색 도서관



책 없는 도서관

광주시립디지털정보도서관

1970-80년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지식창고 역할을 했던 도서관에 색다른 도서관이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책이 없는 도서관’ 컨셉으로 지난 2020년 5월 개관한 광주시립디지털정보도서관이다. 이곳은 1970년 호남 최초 사립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던 ‘전일도서관’이 있던 자리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2층과 3층에 위치한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도심 속 디지털 지식충전소다. 전자 콘텐츠 중심의 도서관인 만큼 ‘책 없는 도서관’으로 불리는 이곳은 2만8000여 권의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신한다.

“디지털도서관 개관 당시 ‘책 없는 도서관’을 컨셉으로, 전자 콘텐츠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설립 취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쇄 도서와 같은 종이책은 없고 전자자료를 볼 수 있는 각종 기기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해 책을 읽는거나 공부할 수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지요.”

디지털정보도서관은 도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동아리 활동 공간 대여가 가능한 ‘그룹실’, 북콘서트와 영화상영 등을 개최하는 ‘이벤트존’, 동적인식 센서를 통해 간단한 움직임으로 여러 지식인들의 명언을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존’, 3400여 권의 만화·웹툰 도서를 만날 수 있는 ‘만화·웹툰존’, PC, DVD, 블루레이,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전자책, 원문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열람존’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특성화 코너로 오픈한 ‘웹툰&만화존’은 이중 가장 인기가 높다. 전자 콘텐츠가 중심인 도서관이지만 누구나라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곳으로, 도서관내 유일하게 종이책이 허락된 공간이기도 하다.

신발을 벗고 편히 앉아서 만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일빌딩245’ 2~3층에

전자책만 2만8000여권

종이책 허락된 웹툰&만화존

동아리활동·북콘서트 공간도

마련된 만화존에는 방학을 맞아 찾아온 초등학교생부터 청소년, 인근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저마다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고 있었다. 30~40대 세대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만한 추억의 만화책 ‘슬램덩크’, ‘베르사유의 장미’, ‘아르미안의 네 딸들’부터 ‘연애혁명’, ‘이태원 클라쓰’ 등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된 웹툰 원작을 종이책으로도 만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출력시스템 ‘이야기자판기’도 눈길을 끈다. ‘이야기자판기’는 웹소설이나 시, 웹툰 등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출력 서비스로, 5분이나 10분 원하는 분량의 읽을거리를 장르 선택과 함께 출력해서 소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이 좋아 잠깐 시간이 날 때 들러서 전자책을 보거나 영화 한편을 보며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처음에만 어색해 할 뿐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정보도서관은 광주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비회원이라면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들고 도서관에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구독형 전자책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광주디지털정보도서관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1월 1일, 설·추석 명절 당일 휴관일이다.



세대마다 좋아하는 종이 만화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디지털정보 도서관’내 웹툰&만화존.

藝 있는 도서관

광주문화예술 작은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만 읽다가 돌아간다면 너무나 삭막할 것 같아요. 주민 누구나도 찾아와 복지는 문화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동네 주민이나 인근 직장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세대별 문화예술강좌와 문화예술 전문도서 대여·열람 서비스를 통한 문화힐링 공간을 꿈꿉니다.”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옆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위치한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이름처럼 작은도서관이지만 지역 언론사에 수십건의 기사가 소개될 정도로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화예술 도서를 위주로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도서만 총 6500여 권.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일종의 자료도서관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앞쪽에는 새로 구입한 도서가 전시돼 있고 안쪽으로는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책들이 꽂혀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소파를 갖춰놓고 있지만 도서관의 특성상 대부분은 대여해 가는 편이다. 모든 도서는 회원등록 후 일반 도서관처럼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이는 광주문화재단 지역콘텐츠팀 오현진 주임이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오 주임은 광주문화재단 입사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문화행사를 기획하며 경력을 쌓아갔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작은도서관을 담당했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서관 환경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새로 구입하기가 힘들어 집에 있는 테이블보나 액자들을 모조리 가져와 꾸몄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죠. 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 기관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이곳 역시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공백기간이 있었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되자”

문화예술 서적 6500여 권

다양한 분야 인문학 강좌도

4월 강좌 수강생 3월 모집

기 때문에 지금의 도서관이 다시 힘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 주임은 6개월 공백기간 동안 문화예술도서관에 맞는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고민을 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만들기 프로그램 등도 좋았지만 도서관의 이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인문학강좌는 2022년 하반기까지 30회 진행됐다. ‘너는 꿈을 키우라 아빠는 소를 키우게’의 저자 박우식 작가의 ‘꿈위 있게 생존하기 위하여’, 한희원 화백의 ‘예술가의 삶’, 박하선 다큐멘터리 감독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주수연 소리꾼의 ‘소리듣는데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이 초빙돼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정연두 작가의 강연은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담양 대덕면 무월마을에 사는 정 작가는 바느질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다. 다양한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지역에서는 감성공예를 매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정 작가는 이틀동안 ‘바느질은 언마다’, ‘일상을 누비는 삶의 놀이판’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수강자들에게 그림의 미학을 알려줬다.

올해 강좌는 3월 모집을 통해 4월 중 진행될 예정이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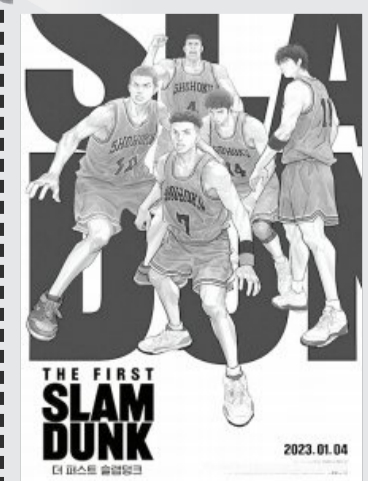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듣고 문화예술 관련 도서를 빌려 볼 수 있는 ‘광주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교섭, 메간
- 2관 상건나, 몬스터 하우스2: 인비저블 피닉스
- 3관 아바타: 물의 길
- 4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5관 유령
- 6관 메간,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메간
- 7관 씨네키움 바빌론, 교섭
- 8관 씨네키움 영웅, 메간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

